

‘豪’字 評語의 美感에 대한 精神分析學的 考察

정 시 열*

<목 차>

- I. 序論
- II. ‘豪’字 評語의 美感
 - 1. 表現 技法의 陽剛함
 - 1) 固有名詞・數詞의 對句 및 詩語의 力動性
 - 2) 悠長하고 廣闊한 時・空間的 背景
 - 2. 凝縮된 氣象의 發露
 - 1) 誇張과 誇示를 통한 豪氣의 發散
 - 2) 自然 景物을 통한 感興의 表出
- III. ‘豪’字 評語와 緊張의 解消
 - 1. 攻擊性的 詩的 昇華(sublimation)
 - 2. 自我(ego)와 超自我(super-ego)의 相互作用
- IV. 結論

【요 약】

본고는 風格批評에 대한 연구로서 洪萬宗(1643-1725)의 詩話集인 『小華詩評』(1675)과 그가 편찬한 『詩話叢林』(1712)을 텍스트로 하여, ‘豪’字 평어의 美感을 검토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豪’字 평어와 관련된 작품의 의미를 정신분석학적 방법에 입각해서 고찰했다.

‘豪’字 평어의 미감은 표현 기법의 陽剛함과 응축된 기상의 표출이라

*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는 측면에서 논의했다. 양강함이란 작품을 읽었을 때 느껴지는 강하고 억센 기운이다. 이러한 양강함은 人名・地名・숫자의 對句 및 詩語의 力動性, 그리고 유장하고 광활한 時空間의 배경을 통해서 나타났다. 응축된 기상의 표출에서는 사람의 기상이라 할 수 있는 豪氣와 興趣가 과장과 과시 및 자연의 경물을 통해서 표출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豪’字 평어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고찰에서는 인간의 내면에서 발산되지 못한 공격성이나 감정의 억압으로 인한 긴장이 ‘豪’字評을 받은 시를 통해 어떻게 해소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격성은 시라는 예술의 형식으로 昇華(sublimation)되며, 감정의 억압은 自我(ego)와 超自我(super-ego)의 상호작용을 통해 해소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풍격평어의 특성에 대한 검토가 비평자의 시각에 기반한 것이라면, 정신분석학적인 접근은 시인의 입장에 기반한 것이다. 이처럼 평어의 특성을 통해 시가 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시란 것이 인간의 심리적 역동성과 복잡미묘함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 같은 존재임을 알 수 있었다.

I. 序論

風格批評이란 1・2・4자로 구성된 함축적인 평어를 통해 시를 비평하는 방식이다. 본고에서는 洪萬宗(1643-1725)의 시화집인 『小華詩評』(1675)과 그가 편찬한 『詩話叢林』(1712)을 텍스트로 하여, ‘豪’字 평어의 특성을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豪’字 평어와 관련된 작품이 갖는 의미를 정신분석학적 방법에 입각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여기서 풍격평어의 특성에 대한 검토는 비평자의 시각에 기반한 것으로서 시가 어떤 특성을 가질 때 ‘豪’字評을 내리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적 접근은 시인의 입장에 기반한 것으로서 ‘豪’字 評語와 관련된 시가 시인에게 미치는 심리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漢詩

가 인간의 심리적 역동성과 복잡미묘함을 반영하는 거울 같은 존재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본고는 『小華詩評』과 『詩話叢林』이라는 비교적 방대한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18세기 초까지의 다양한 시화를 통해 ‘豪’字 평어를 연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평어의 특성을 제시하는 데 있어 보다 확실한 타당성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小華詩評』은 그 비평적 가치를 널리 인정받았던 시화서로서 현재 확인된 異本만도 45종¹⁾에 달한다. 비평 대상을 보면 역대의 제왕과 사대부에서부터 승려·부녀자·노비·羽士·귀신·요절한 시인 등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신분의 시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심에는 사대부 시인들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주된 비평 방식이 풍격비평이며, 사용된 풍격평어의 종류나 수가 방대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詩話叢林』은 고려와 조선의 시화 24편을 홍만종이 자신의 비평적 안목에 바탕해서 중요한 항목만을 간추려 4권 4책으로 편찬한 것이다. 『詩話叢林序』를 보면 우리 나라에는 一家를 이룬 시인에 비해 훌륭한 詩評家가 부족하므로 후세를 위해 시화를 정리한다는 이 책의 편찬 의도가 잘 드러나 있다.

일반적으로 ‘豪’字 평어의 작품을 읽어보면 강하고 억센 기운이 감도는 걸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본고의 제Ⅱ장에서는 실제 작품을 통해 표현 기법의 陽剛함과 응축된 氣象의 發露라는 측면에서 ‘豪’字 평어의 특성을 살펴보겠다. 풍격을 美의 종류를 의미하는 말로 볼 때 풍격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美學이 된다.²⁾ 그러므로 풍격평어의 특성은 바로 그 풍격의 美感이라 할 수 있다. 평어가 지닌 이러한 특성을 찾는 것은 풍격비평의 성립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다.

1) 김선기, 『小華詩評 研究』, 전북대 박사논문, 1993, 32-34쪽.

2) 차주환, 『唐代的 風格論(上)』, 『心象』 제5호, 심상사, 1974, 138쪽.

기도 하다.

제Ⅲ장에서는 ‘豪’字 평어와 관련된 작품을 정신분석학적 방법을 통해 시인의 심리적 긴장 해소라는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옛 속담처럼 사람에게는 그 외면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복잡다단한 내면이 존재한다. 그런 까닭에 사람은一念을 가지고 일관되게 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 속에 여러 가지 갈등과 모순을 내재한 채 살아가고 있다. 시인도 사람이므로 시는 외면적으로 드러난 의미 외에 시인의 심층 심리와 연관된 많은 이면적 의미를 내포할 수 있는 것이다.

풍격비평에 사용되는 평어는 字數에 따라 1·2·4字類가 있는데 그 중 두 글자로 구성된 2자류 평어가 제일 많다. 그리고 대부분의 4자류 평어도 2자류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2자류 평어를 중심으로 논의하겠다.

2자류 평어에서 앞의 字와 뒤의 字의 관계는 종속·병렬·강조·부연·형식과 내용 등 여러 양상으로 설명되는데, 漢字는 表意文字인 만큼 한 글자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다양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2자류 평어에서 비평자는 자신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을 선택하여 평어를 만든다. 이 경우 아무래도 앞의 글자에 더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 즉 두 개의 1자류 평어가 결합하여 하나의 2자류 평어를 형성했을 때 두 평어가 서로 대등한 병렬 관계라 하더라도 앞의 평어가 뒤의 평어에 비해 더 중심적인 의미를 지닐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사실 비평에 빈번히 등장하는 주요 평어의 대부분이 앞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豪’字가 앞에 사용된 경우만을 논의 대상으로 할 것이다.

『小華詩評』과 『詩話叢林』에 나오는 ‘豪’字 평어에 대한 통계는 다음과 같다. 참고로 말하자면, 괄호 안에서 앞의 숫자는 해당 평어가 언급된 회수이고, 뒤의 숫자는 제시된 작품 수이다. 대체로 평어가 한 번 언급될 때마다 작품은 한 수에서부터 여러 수가 제시될 수 있으므로

작품의 숫자는 평어의 사용 빈도와 같든지 아니면 더 많다.

<‘豪’字類>

15종 29회 44수

豪(2/2) 豪氣(2/2) 豪健(2/2) 豪壯(6/19) 豪橫(1/1) 豪爽(2/2) 豪放(3/3)
豪舉(1/3) 豪逸(3/3) 豪雄(1/1) 豪縱(2/2) 豪鬯(1/1) 豪邁(1/1) 豪宕
(1/1) 豪警(1/1)

내면에 쌓인 자신의 정회를 짧게는 20字에서 길게는 56字의 형식으로 풀어낸 결과물이 近體詩라면, 그 속에는 당연히 인간의 복합적인 심리가 집약되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성격의 한시를 한 글자 내지 두 글자로 더욱 압축해서 나타낸 것이 바로 풍격평어라는 사실은 漢詩를 이해하는 것보다 풍격평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豪’字 평어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을 시작하겠다.

Ⅱ. ‘豪’字 評語의 美感

漢詩 비평에서 ‘豪’字 평어는 자주 사용되지만 그 의미를 설명한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나마 司空圖의 『二十四詩品』에 제시된 4언 12구의 시가 ‘豪’字에 대한 자세한 언급 중 하나일 것이다. 지금도 우리는 일상에서 “豪氣를 부린다.”, “성격이 豪宕하다.”, “그 사람 豪傑이야.”하는 식의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이런 표현들을 말하거나 들을 때 우리의 뇌리에는 딱히 한 가지로 정의 내리기 어려운 여러 갈래의 개념들이 떠오르는데, ‘豪放’을 설명한 사공도의 시는 바로 이러한 개념들의 집합체일 것이다.

觀花匪禁	꽃을 구경하는 것 막지 않으면서,
吞吐大荒	온 누리를 삼켰다 토했다 한다.
由道反氣	도리에 따라 호연지기로 돌아가니,
處得以狂	처신을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
天風浪浪	천상의 바람이 물결치는 듯하고,
海山蒼蒼	바다의 산이 질푸르게 치솟아 있는 듯하다.
眞力彌滿	참된 힘 가득 차 있고,
萬象在旁	삼라만상은 그 곁에 있다.
前招三辰	앞으로는 해와 달과 별을 부르고
後引鳳凰	뒤로는 봉황새 끌어온다.
曉策六鰲	새벽에 여섯 마리 큰 바다 거북 채찍질하여
濯足扶桑	부상에서 발 씻는다.

위에 제시된 사공도의 시를 보면 그 분위기나 내용에 대한 대략적인 감은 느낄 수 있지만 이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면 말문이 막힌다. 그 이유는 ‘豪放’에 내재된 다양한 의미와 분위기를 함축적으로 나타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논리적인 면보다는 형상적인 면에 더 치중하게 되었다.³⁾ 또한 이 시는 표현면에서, ‘大荒’·‘天風’·‘海山’·‘三辰’·‘萬象’과 같이 규모가 크고 웅장한 이미지의 시어와 물결이 치는 모양을 나타낸 ‘浪浪’, 짙은 색감의 ‘蒼蒼’, 그 밖에 ‘吞吐’·‘彌滿’ 등 陽的인 성격의 시어가 다수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鳳凰’·‘六鰲’·‘扶桑’과 같은 전설적인 소재를 시어에 차용함으로써 ‘豪’字 평어가 지닌 응축된 氣象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제5-12구에서는 제1-4구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했는데, 이는 ‘豪放’이라는 평어에 내재된 氣象을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豪’자 평어의 시는 氣象에 관계된 내용이 주축을 이루며,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한 것(至大至剛)’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 점은 ‘온 세상을 뒤덮을 정도로 기운이 강하여 남에게 얹매이지 않는다’는 ‘蓋世

3) 팽철호, 『司空圖『二十四詩品』研究』, 서울대 석사논문, 1986, 17-20쪽.

不羈’의 활달한 정신과도 통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豪’字 평어의 특성을 표현 기법의 陽剛함과 응축된 氣象의 발로라는 두 측면에서 논의하겠다.

1. 表現 技法의 陽剛함

陽・剛은 “乾・坤은 易의 門일 것이다. 乾은 陽物이고, 坤은 陰物이니, 陰・陽이 덕을 합하여 剛・柔가 體가 있게 되었다.”(乾坤, 其易之門邪. 乾陽物也, 坤陰物也, 陰陽合德, 而剛柔有體)는 『周易』『繫辭下傳』에 나오는 용어로, 적극적이며 남성적인 의미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표현 기법의 陽剛함이라 함은 시의 의미 전달을 위해 사용된 표현상의 특질들이 힘차고 거센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시를 읽었을 때 사용된 시어나 시적 소재를 통해 그 시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의 상당 부분이 표현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시에 사용된 인명・지명・숫자 등의 시어가 이루는 대구 및 시어의 역동성, 그리고 悠長하고 廣闊한 시공간적 배경이라는 두 측면에서 ‘豪’字 평어와 관련된 작품의 陽剛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固有名詞・數詞의 對句 및 詩語의 力動性

시에 힘찬 기운을 주기 위해 인명이나 지명 등 고유 명사를 시어로 사용⁴⁾할 수 있다. 이러한 고유 명사는 동일한 字數의 다른 시어에 비해 글자 자체의 상징성이 크다. 그래서 字數가 제한된 漢詩라는 짧은 형식 내에서 시인의 뜻을 전달하는 강렬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陽

4) 『李安訥의 현실주의적 詩精神과 紀實의 시세계』(이종묵, 『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태학사, 2002, 371-377쪽)에서는 인명・지명을 시어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주의적 시세계를 보여주는 杜甫 詩의 작법이자, 새로운 시풍을 선도한 海東江西詩派의 작법임을 지적했다.

剛함을 나타내는 데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豪’字 평어의 시에는 유독 이러한 고유 명사의 사용이 많은데, 이 중에는 역사적·전설적 숨意를 지닌 시어들도 있다. 그리고 숫자를 통해 시인의 정서를 수량화하여 강조한 것도 시어 사용상의 한 특징이다. 특히 이러한 시어들이 대구를 이루는 경우, 독자에게 전해지는 의미적 과급력이 倍加된다. 또한 강한 질감을 지닌 힘찬 시어가 많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인데, 주로 서술어의 사용에서 이러한 역동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작품을 통해 시어에 나타난 陽剛함에 대해 살펴 보겠다.

碧雲暮隔魚鳧水 푸른 구름은 저물녘 어부수를 가로 막았고,
紅樹秋連鳥鼠山 단풍나무는 가을에 조서산을 연했구나.⁵⁾

이 시는 益齋 李齊賢(1287-1367)의 작품이다. 위에 제시된 두 시구의 풍격이 ‘豪壯’한 것은 地名의 사용과 서술어의 역동성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魚鳧水’와 ‘鳥鼠山’은 모두 중국의 지명이다. 이제현이 평생 동안 중국을 여러 차례 다녔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지명 사용이 그리 어색하지는 않다. 하지만 7언시 두 구에서 세 자로 된 지명을 두 번이나 사용한 데는 시인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

일단 ‘魚鳧水’와 ‘鳥鼠山’은 ‘물고기(魚)와 물오리(鳧)는 물(水)에 살고, 새(鳥)와 쥐(鼠)는 산(山)에 산다.’로 이해될 수 있는 묘한 글자 구성을 보여준다. 넓게 본다면 이 두 지명의 대구는 山水의 대구가 된다. 전체 자연의 표상물인 산과 물을 대구로 표현했다는 데서 웅장한 시적 구도를 통해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고자 한 시인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그럼 두 시구에서 서술어로 사용된 ‘隔’과 ‘連’의 역동성에 대해 살펴

5) 曹仲, 『謏聞瑣錄』 第43話, 『詩話叢林』 卷一.

보겠다. ‘隔’은 중간에서 무엇을 가로막는다는 의미를 지닌 시어이다. 황혼 무렵의 구름이 어부수를 가로막았다는 표현에서 옆으로 광활하게 펼쳐진 물의 수평성을 수직으로 가로지르는 동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다. 두 번째 시구에서 ‘連’은 연속해서 이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붉게 물든 단풍이 숲을 이루고, 이것이 조서산으로 길게 연결된 모습은 굽이쳐 흐르는 긴 강을 보는 것 못지 않게 힘찬 느낌을 준다. 이처럼 지명의 대구와 서술어가 지닌 역동성을 통해 豪壯한 풍격이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陽剛性은 폭포와 같은 힘찬 자연 경물을 노래한 시에서도 나타난다. 박연폭포를 읊은 車天輅(1556-1615)의 시를 살펴보겠다.

오산 차천로의 시에 이르기를,

削立層巒列似屏	깎아세운 듯한 봉우리 병풍 같이 늘어섰는데
半空驚沫吼雷霆	반공에 놀란 물줄기 천둥처럼 우는구나.
晴虹倒掛潭心黑	갠 날 무지개는 시커먼 못 가운데 거꾸로 걸렸고,
白練斜飛石骨青	흰 비단은 푸른 돌 사이에 비스듬히 날리는구나.

비록 ‘은하’ 두 글자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청홍’과 ‘백련’은 역시 옛날 사람이 많이 쓴 말이다. <…>, 아래 시는 글귀는 豪하게 되었으나 의미는 별로 없게 되었다.⁶⁾

이 시는 박연폭포의 웅장한 모습을 생동감 넘치는 필치로 묘사했다. 대구마다 역동적 시어가 사용된 것이 눈에 띄는 특징이다. 제1구에서 ‘削立’은 날카로운 긴장감을 내포한 시어로서 병풍같이 늘어섰다는 장중한 표현과 함께 시인의 정서적 격동을 반영한다. 제2구에서는 폭포의 물

6) 五山車天輅詩云, 削立層巒列似屏, 半空驚沫吼雷霆. 晴虹倒掛潭心黑, 白練斜飛石骨青. 雖不用銀河二字, 而晴虹白練, 亦古語也. <…>, 下詩句豪而少意味.(金得臣, 『終南叢志』第11話, 『詩話叢林』卷四)

줄기가 포말을 일으키며 떨어지는 힘찬 경관을 ‘雷霆’이라는 청각적 심상을 통해 표현해내고 있다. 여기서 ‘驚’은 폭포 소리에 놀란 시인 자신의 정서를 물줄기에 이입한 것이다. 이처럼 전반부는 격렬한 기상 전개를 보이고 있다.

반면 시의 후반부에서는 다소 조용한 가운데 힘찬 기상을 표현했다. 제3구는 폭포 아래 깊은 못에 생겨난 무지개를 묘사한 부분이다. 여기서는 ‘倒掛’라는 시어를 통해 무지개의 아름다움보다는 못을 가로지르는 역동적 형상에 주목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그리고 제4구에서는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줄기를 바람에 하늘거리는 흰 비단에 비유해서 ‘斜飛’라는 동적인 시어로 표현했다. 차천로가 이 두 시구에 나타난 풍격이 ‘豪’하다고 평한 것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어의 역동성에 힘입은 것이다.

그럼 牧隱 李穡(1328-1396)의 豪壯한 시를 통해 숫자의 대구를 살펴 보겠다.

城空月一片 성은 텅 비었는데 한 조각 달이 휘영청 밝고,
石老雲千秋 돌은 늙었는데 천추에 구름만이 오락가락⁷⁾

위의 시구는 浮碧樓에 오른 시인이 지난 역사를 회고하며 묘사한 광경이다. 첫째 구에서 빈 성에 떠 있는 한 조각달은 시인의 고독하고 울적한 심사를 반영하는 매개물로서, 번성했던 시절을 뒤로한 채 이제는 그 흔적만이 남아 있는 옛 성터의 모습과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둘째 구에서는 늙은 돌과 천 년이라는 시간성을 통해 古都에 대한 시인의 감회가 人間事의 無常함을 자각하는 데 이르고 있다. 이 시에서 ‘一片’·‘千秋’ 등의 수사적 표현은 대구를 통해 시인의 慷慨한 정서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7) 曹仲, 『謏聞瑣錄』 第43話, 『詩話叢林』 卷一.

2) 悠長하고 廣闊한 時・空間의 背景

시에 제시된 시공간적 배경을 통해 시인의 포부와 기상을 짐작할 수 있다. ‘豪’字 평어의 작품은 수 백, 수 천년 전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는 긴 시간적 배경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해 나간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적 거리의 悠長함은 시인의 胸中에 자리한 사고의 깊이와 넓이를 반영한다.

이러한 시간적 배경과 함께 廣闊한 공간적 배경은 시인의 원대한 정신 세계를 말해준다. 일반적으로 협소한 공간은 시인은 물론, 독자의 마음까지 답답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확 트인 공간이 주는 浩然함과 그 속에서 종횡무진 펼쳐지는 시상의 전개는 壯快感을 느끼게 한다. 그럼 실제 작품을 통해 이러한 시공간적 배경에 나타난 특성을 살펴보겠다.

정포은은 성리학과 절의에 대해서만 한 때의 제일이 아니요, 그 문장도 豪放하고 傑出했다. 북관에 있을 때 시를 짓기를,

定州重九登高處	정주 중양절에 높은 곳에 오르니,
依舊黃花照眼明	국화꽃 옛날 같이 환하게 피었구나.
浦潑南連宣德鎮	갯벌은 남으로 선덕진에 연했고,
峰巒北倚女眞城	봉우리는 북으로 여진성에 걸쳐 있다.
百年戰國興亡事	백 년 동안 전쟁으로 소용돌이 치던 일에
萬里征夫慷慨情	만리 밖의 군인들 고달픈 심정이었네.
酒罷元戎扶上馬	술자리 끝나고 취한 장군 부축해 말에 오르니
淺山斜日照紅旌	얕은 산에 걸친 석양이 깃발을 별정게 비추는구나.

음절이 시원스레 척척 들어맞아 성당의 풍격이 있다.⁸⁾

8) 鄭圃隱, 非徒理學節義冠于一時, 其文章, 豪放傑出. 在北關作詩曰, 定州重九登高處, 依舊黃花照眼明. 浦潑南連宣德鎮, 峰巒北倚女眞城. 百年戰國興亡事,

鄭夢周(1337-1392)는 실제 文武를 겸전한 豪氣로운 인물이었다. 위의 시는 그가 韓方信의 從事官으로 從軍했을 무렵 함경도에서 지은 邊塞詩이다. 이 시의 시공간적 배경을 중심으로 豪放함에 대해 살펴보겠다.

首聯에서는 높은 곳에 올라 국화를 구경하는 重陽節 登高의 풍습을 노래했다. 여기서 제2구의 ‘依舊’라는 표현에는 매년 변함없이 피어나는 국화와 달리 종잡을 수 없는 인생에 대한 시인의 감회가 담겨 있다. 이렇듯 戰場에 있는 까닭에 예전처럼 평화롭게 국화를 감상할 처지는 못되지만 시인은 결코 위축되지 않는다. 오히려 눈 앞이 환하게 밝아진다는 ‘眼明’이라는 표현을 통해 高地에 올라 확 트인 사방을 조망하며 국화를 감상하는 여유와 기상을 드러냈다.

시인의 이러한 심사는 공간에 대한 묘사를 통해 頷聯으로 이어진다. 頷聯에서 서술어로 사용되고 있는 ‘連’과 ‘倚’는 갯벌과 봉우리가 각각 남북으로 시원스레 뻗어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통해 ‘宣德鎮’과 ‘女眞城’으로 이어진 동북 변방의 광활함을 떠올리게 된다. 특히 ‘女眞城’이라는 지명은 이 곳이 바로 戰雲이 감도는 국경 지역임을 말해준다. 이러한 공간적 배경에는 邊塞詩 특유의 豪放함이 잘 나타나 있다.

頸聯에서는 百年과 萬里라는 시공간적 배경을 통해 전란으로 점철된 역사와 먼 원정길에서 느끼는 고달픔을 慷慨하고 豪氣롭게 나타냈다. 이것은 시인이 자신의 정서를 군사들의 정서로 확장시킨 것으로, 唐代의 시인 杜甫가 樂府詩『병거행(兵車行)』을 통해 당시 민중들의 마음을 대변한 것과 같다. 물론 出戰한 장수가 軍陣에서 전란의 興亡事를 한하며, 고달픔을 말했다면 그 기상이 장수답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점이 그 豪氣의 깊이를 더해 주기도

萬里征夫慷慨情。酒罷元戎扶上馬，淺山斜日照紅旂。音節跌宕，有盛唐風。(『惺叟詩話』第16話，『詩話叢林』卷三)

한다. 즉 정몽주 자신이 한낱 武功에만 열을 올리는 지휘관이 아닌 역사와 인간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군사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줄 아는 德將의 풍모를 지녔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마지막 尾聯은 술을 마신 후 대장군과 함께 말에 오른 시인이 석양 아래 산들을 조망하는 모습이다. 거나하게 취한 장군이 말에 오르는 느릿하면서도 육중한 동작과 석양에 붉게 물든 깃발의 펄럭임을 통해 시인의 豪放한 심사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북방의 험준한 산들을 ‘淺山’으로 표현한 공간적 구도야말로 시인의 충만한 豪氣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⁹⁾ 이 시가 盛唐風을 지녔다는 평을 받은 것은 다름아닌 시 공간적 배경에 반영된 씩씩함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번에는 신하가 아닌 王者의 기상이 반영된 시를 살펴보겠다.

조선 역대 제왕의 시문 또한 그 양이 많다. 태조께서 왕위에 오르시기 전에 백악에 올라 다음 시를 남기셨다.

突兀高峰按斗魁	우뚝 솟은 봉우리는 북극성과 맞닿았고,
漢陽形勝自天開	한양의 빼어난 풍경은 천지개벽 때부터 있었네.
山盤大野擎三角	못산이 에두른 큰 들은 삼각산을 받들고,
海曳長江出五臺	바다로 뻗어간 긴 강은 오대산에서 나왔네.

이 시는 필력이 豪壯하여 『대풍시(大風詩)』와 더불어 웅장함을 다룰 만하다. 큰 왕업의 기틀을 연 것은 실로 이 시에서 조짐을 보인다.¹⁰⁾

太祖 李成桂(1335-1408, 재위1392-1398)는 조선 왕조를 개국한 군주

9) 이종묵, 「시의 뜻을 호방하게 하는 법」, 『詩眼』 제25호, 시안사, 2004, 218-219쪽 참조.

10) 我朝列聖翰墨亦多矣. 太祖微時登白岳有詩曰, 突兀高峰按斗魁, 漢陽形勝自天開. 山盤大野擎三角, 海曳長江出五臺. 筆力豪壯, 幾與大風詩爭雄. 其肇創鴻基, 實兆於此.(『小華詩評』 上卷, 第5話)

이다. 왕족이 아닌 동북면의 군벌로서 군왕의 자리에 올랐다는 역사적 사실은 그가 남다른 기상(氣象)의 소유자였음을 말해준다. 위의 「白岳詩」에 대한 홍만종의 평도 이성계의 이러한 기상과 관련해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그가 시평에서 「대풍시(大風詩)」를 언급한 것은 漢나라를 창업한 劉邦이 이성계와 마찬가지로 평민 출신의 황제였기 때문이다. 그럼 시공간적 배경을 통해 이 시의 ‘豪壯’함에 대해 살펴보겠다.

먼저 제1구에서는 白岳의 산봉우리들이 북극성을 쓰다듬고, 어루만질 만큼 높이 솟아 있음을 묘사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수직적인 공간 전개가 ‘突兀’이라는 시어만큼이나 힘차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이어진 제2구에서는 白岳에서 바라본 한양의 경관에 대해 노래했다. 여기서는 광활하게 펼쳐진 수평적 공간 전개를 통해 이성계의 포부를 읽을 수 있다. 특히 하늘이 처음 열린 天地開闢이라는 시점은 시인의 정서를 한층 더 심화시키는 시간적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3·4구는 白岳에 오른 이성계가 주위의 지세를 조망한 부분이다. ‘山’·‘大野’·‘海’·‘長江’ 및 ‘三角山’·‘五臺山’ 등의 웅장하며 활짝 트인 공간적 배경을 바탕으로 山河의 형세를 힘찬 시어로 그려냄으로써 자신의 기상을 표출하고 있다. 국토에 대한 이러한 공간적 인식은 그가 장차 왕이 될 인물임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은 풍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凝縮된 氣象의 發露

사람들이 ‘豪’字 평어의 작품을 짓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정말 豪氣가 넘쳐서 지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없는 豪氣가 생기게 하려는 의도에서 지었을 수도 있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자못 豪氣가 있는 척하기 위해 지었을 수도 있다. 시인의 의도야 어찌됐든 분명한 것은 ‘豪’字 평어의 작품에서는 시인의 정신적 氣象 즉 氣概가 느껴진다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응축된 정신적 氣象이 표출되는 양상을 과장과

과시를 통한 豪氣의 발산, 그리고 자연 경물을 통한 感興의 표출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誇張과 誇示를 통한 豪氣의 發散

豪氣는 豪放하고 壯快한 기운이다. 이처럼 陽剛한 기운은 외부로 발산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다. 豪氣로 충만한 시인은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기상을 나타내고자 시에서 誇張된 표현을 하며, 자신의 호쾌함을 誇示하기도 한다. 또한 시인은 과장과 과시를 통해 자신의 정서에 몰입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어진 시에서는 그 힘찬 기상과 함께 당당함과 자연스러움이 느껴진다. ‘豪’字 평어의 작품들은 그 시상이 현실적 토대 위에서 전개되므로 과장과 과시라는 표현상의 특질이 비현실적인 기괴함으로 흐르지 않는다. 그럼 이러한 특성을 실제 작품을 통해 살펴보겠다.

『輿地勝覽』에는 고려 태조가 국토를 순시하다 경성의 용성현에 이르러 지은 절구 한 수가 있다.

龍城秋日晚 용성에 가을 해 저물자
古戎寒烟生 낡은 수자리에 차가운 연기가 오르네.
萬里無金革 만리변방에 전쟁이 없으니
胡兒賀太平 오랑캐도 태평성대를 축하하도다.

이 시는 意格이 豪雄하며, 音律이 和暢하여 삼한을 통일한 태조의 기상을 볼 수 있다.¹¹⁾

11) 按輿地勝覽, 載高麗太祖嘗巡到鏡城龍城縣, 有詩一絕曰, 龍城秋日晚, 古戎寒烟生. 萬里無金革, 胡兒賀太平. 意格豪雄, 音律和暢, 其一統三韓之氣像, 於此可見.(『小華詩評』上卷 第1話)

이 시는 高麗 太祖(877-943, 재위918-943)가 변경을 순시하고 지은 것으로 王者의 남다른 기상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제1·2구는 변세의 적막한 저녁 풍경을 묘사한 부분으로 본격적 시상 전개를 위한 시공간적 배경 제시에 해당한다. 특히, ‘秋’와 ‘寒’의 대구가 쓸쓸한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상에 이어 제3구에서는 ‘金革’ 즉 전쟁이 사라졌다는 말로 治世를 과시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온 나라 전체에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음을 은근히 자랑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또한 제4구에서는 국경을 두고 대치하던 오랑캐조차도 자신의 盛德에 賀禮한다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豪氣를 한껏 발산하고 있다.

사실 이 시는 『小華詩評』에서 君王의 시를 따로 뽑아 놓은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홍만중은 三韓을 통일한 태조의 豪雄한 기상을 볼 수 있다는 평을 내렸는데, 이것은 君王이라는 신분에 주목한 것이다. 『孟子』를 보면 地位와 氣象에 관한 언급이 나온다. 공자가 范曄에서 齊王의 아들을 보고 감탄한 구절¹²⁾이나 魯나라·宋나라 군주의 음성이 유사함을 말한 구절¹³⁾은 모두 지위가 사람의 기상을 만든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옛부터 帝王은 하늘이 낸다고 여겼다. 이러한 제왕의 시에 나타난 과장과 과시, 그리고 이를 통한 豪氣의 표출은 바로 국력과 직결된 것이

12) “공자께서 范曄으로부터 齊나라에 가시어 제왕의 아들을 바라보시고는 喟然히 감탄하셨다. 거처가 기운을 옮겨 놓으며, 봉양이 몸을 바꿔 놓으니 크구나! 거처함이여! 모두 사람의 자식이 아니겠는가!(孟子自范之齊, 望見齊王之子, 喟然歎曰, 居移氣, 養移體, 大哉, 居乎, 夫非盡人之子與。)(『孟子』「盡心章句上」)

13) 魯나라 군주가 宋나라에 가서 질택의 문에서 고함을 치자, 성문을 지키는 자가 말하기를 ‘이는 우리 군주가 아닌데 어쩌면 그리도 음성이 우리 임금과 같은가.’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거처가 서로 유사하기 때문이다.(魯君之宋, 呼於垓澤之門, 守者曰, 此非吾君也, 何其聲之似我君也, 此無他, 居相似也。)(『孟子』「盡心章句上」)

기에 이처럼 긍정적인 평을 받았던 것이다. 그럼 칼을 소재로 한 시를 한 편 살펴보겠다.

이청강은 이름이 제신으로 내 외조모님의 외조부이다. 도량이 활달하고, 문장이 豪邁하며 기상이 한 시대를 뒤덮었다. 『길에서 읊음(途中口占)』이라는 시에 이르기를,

男子平生在 남자가 한 평생 살아감은
 星文古劍寒 오랜 검에 별무늬 싸늘히 비치는 것이라.
 重磨鴨綠水 거듭 압록강 물에 검을 갈아,
 新倚白頭巒 새로 백두산 봉우리에 기대섰네.

그 기상을 상상할 만하다.¹⁴⁾

이 시는 남자의 인생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를 단순하고 명료하게 표현해낸 작품이다. 시가 경쾌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과장과 과시를 통해 시인의 응축된 기상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제1구에 내포된 일생이라는 시간성은 그 시작부터 상당한 무게감을 안겨 준다. 하지만 제2구에서는 ‘古劍’에 비친 별무늬라는 함축적인 말로 비교적 간단히 인생을 정의내림으로써 앞 구에서 고양된 정서적 긴장이 갑자기 이완되는 듯한 시적 頓挫를 보인다. 이러한 제2구는 일견 단순히 보이지만 그 내면을 보면 ‘劍’, 그것도 시간성이 반영된 ‘古劍’을 통해 남자의 인생길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멋스런 과장이자 과시로 볼 수 있다.

제3·4구에서 압록강과 백두산은 시인의 기상을 상징하는 자연景物이다. 여기서 강물에 검을 갈고 봉우리에 기대서는 행위는 다소 靜

14) 李清江諱濟臣, 余外祖妣外王考也. 器度磊落, 文章豪邁, 氣蓋一世. 其途中口占詩曰, 男子平生在, 星文古劍寒. 重磨鴨綠水, 新倚白頭巒. 氣像可想.(『小華詩評』下卷, 第14話)

的으로 다가오지만, 그 어떤 역동적인 동작보다 시인의 응축된 豪氣를 강하게 전해주는 과장이며 과시다. 이처럼 ‘豪’字 평어와 관련된 시에서의 과장과 과시는 기상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상의 특징으로 자리잡고 있다.

2) 自然 景物을 통한 感興의 表出

‘豪’字 평어와 관련된 시에서, 감흥은 시인이 외부의 경물을 접했을 때 그 내면에서 솟구쳐 일어나는 강한 정서이다. 이러한 감흥이 반영된 시에서는 시인의 응축된 기상을 느낄 수 있으며, 이것은 자연 경물을 통해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보면 감흥은 결코 柔弱한 정서가 아니라, 시인의 抒情性 속에 자리한 陽剛한 정서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럼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이러한 감흥의 표출을 살펴보겠다.

선비 소형진의 『한강 다락에 씀(題漢江樓)』이라는 시에 이르기를,

煙波長笛下中流	내 긴 강에 길게 피리 불며 물결 따라 내려가니,
三月歸舟遠客愁	삼월에 돌아가는 배 나그네 시름 자아낸다.
無限沙鷗與漁父	수도 없는 갈매기며 어부들
一時離別漢江頭	한꺼번에 한강가에서 이별을 고하네.

보는 사람에게 豪氣가 웅솟음치게 한다.¹⁵⁾

이 시는 船上에서 느끼는 나그네의 감회를 읊은 것으로 제1·2구, 제 3·4구가 각각 先景後情의 시상 전개를 보여준다. 제1구에서 시상

15) 士人蘇亨震, 題漢江樓曰, 煙波長笛下中流, 三月歸舟遠客愁. 無限沙鷗與漁父, 一時離別漢江頭. 令人湧出豪氣.(權應仁, 『松溪漫錄』第60話, 『詩話叢林』卷二)

의 중심은 안개 자욱한 강에 울려 퍼지는 피리 소리이다. 안개 낀 강의 희뿌연 풍광은 시각을 흐리는 대신 피리가 주는 청각적 심상을 더욱 부각시킨다. 그래서 ‘長笛’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제2구에서는 시인의 ‘客愁’에 대해 읊었다. 바야흐로 만물이 생동하는 봄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나그네 신분을 면치 못한 시인의 심사는 착잡하기만 한데, 이러한 정서로 작품이 마무리되면 豪氣로운 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제3구에서는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頓挫는 시의 기상을 더욱 강하게 해준다. 여기서 자연의 경물로 제시된 수많은 갈매기와 어부는 시인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응축된 정서를 자극하는 촉매의 역할을 한다. 그 결과 제4구에서는 시인의 감흥이 일시에 터져나오는 감정의 격출을 보이는데, ‘호기가 용솟음 친다’(湧出豪氣)의 평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마찬가지로 누각에 올라 지은 任義伯(1605-1667)의 시를 한 수 살펴 보겠다.

젊었을 때에 나주에 가셨다가 「비 오는데 남문루에 올라서(雨中登南門樓)」라는 시를 지으셨다.

千里來遊古錦州	천 리길 떠나와 옛날 금주를 구경하니,
亂山橫北水南流	어지러운 산은 북쪽으로 가로놓였고, 물은 남으로 흐르네.
長風吹雨連天暗	거센 바람 비를 뿌려 온 하늘이 어두운데
多少羈愁獨倚樓	나그네 온갖 시름에 잠겨 혼자 누대에 기대는구나.

창주 김익희는 매양 말하기를, “이 시는 원대한 운치가 무한히 있어서 기상이 대단히 ‘豪’하게 되었으니 반드시 높이 등용될 것이요, 결코 오랫동안 곤궁할 리가 없을 것이다.”하더니 그 말이 과연 맞았다.¹⁶⁾

16) 少時，客遊羅州，雨中登南門樓詩曰，千里來遊古錦州，亂山橫北水南流。長風吹雨連天暗，多少羈愁獨倚樓。金滄洲益熙，每謂，此作有無限遠致，氣象甚豪，

이 시에서는 羅州의 南門樓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廣闊한 공간성을 토대로 묘사했다. 제1구에서 천리길을 왔다는 표현은 옛 錦州 지역을 둘러보고자 하는 시인의 열정을 보여준다. 이어지는 제2구에서는 종횡으로 펼쳐진 山水의 힘찬 형세를 통해 시인의 기상을 나타냈다. 특히, ‘亂’·‘橫’, 두 시어는 금주 땅을 본 후의 걱정적인 심사를 반영한 것이다.

시의 후반부인 제3구에서는 시인의 이러한 심정을 알기라도 하는 듯 거센 바람에 비까지 뿌리게 되어 온 하늘이 암흑 천지가 되었음을 읊고 있다. 시평에서 기상이 ‘豪’하다고 한 것은 자연 경관과 기후의 변화를 묘사한 솜씨가 이처럼 활달하다는 데 緣由한 것이다.

어두워진 하늘 아래서 시인은 여러 가지 시름에 잠기게 된다. 이 시름은 바로 이 곳 남문루에서 느끼는 감흥으로 볼 수 있다. 이 감흥은 역사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광대한 자연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한 인간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 비록 홀로 다락에 의지한 채 생각에 잠겨 있지만, 앞 부분에서 보여준 그의 기상으로 볼 때 시인의 감흥이 결코 나약한 데로 흐르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자연의 경물들이 시인의 강한 정서적 감흥을 유발하는 외적 동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Ⅲ. ‘豪’字 評語와 緊張의 解消

문학 비평에 있어서 정신분석학적 방법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문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一群의 비평가들에 의해 정립되었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생활 속에서 억압해온 욕구를 상징적으로 제

必當高騫，決無落魄久困之理，其言果驗。(任埜，『水村漫錄』第14話，『詩話叢林』卷四)

시한 것이 문학이므로, 문학 작품에 내재된 잠재적 내용을 살피기 위해서는 인간의 보이지 않는 정신적 영역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정신분석학적 방법은 시인과 시적 화자의 내면 심리를 통해서 작품을 분석하기 때문에 작품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정신분석학적 방법을 통해 “豪”字 평어의 특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승화’(sublimation) · ‘자아’(ego) · ‘초자아’(super-ego) 등의 정신분석학 용어가 논의에 활용될 것이다.

프로이트가 생각한 人性의 체계는 이드(id) · 자아(ego) · 초자아(super-ego)에 그 논리적 토대를 두고 있다.¹⁷⁾ 그는 인간의 생활이란 본능적 충동의 힘과 이를 감시하고 억압하는 힘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결정되는 것¹⁸⁾이라고 했다. 이처럼 인간의 내면에는 욕구를 추

17) 이드는 육체적 욕구로부터 나오는 본능적 충동을 만족시키고자 철저하게 쾌락 원칙에 의해서만 움직인다. 이것은 도덕이나 양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자 그대로 들끓는 가마솥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이드는 활력의 원천이 되므로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결과에 대한 조심성이 없으므로 인간에게 위험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자아는 이드에서 나온 충동을 조정하고 억누르며, 이드와 초자아 사이를 중재하여 개인의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현실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 초자아는 주로 도덕적 판단을 하면서 충동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감시자의 기능을 한다. 또한 초자아는 양심과 금지의 저장소이자 인간의 도덕률로서 완전성을 지향하는데 이것이 지나치게 강할 경우 무의식적인 죄책감을 자아 내기도 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셋의 관계를 간단히 말하자면, 이드는 인간을 동물처럼 본능에 따라 살게 만들고, 초자아는 인간을 교과서처럼 경직되게 살도록 한다. 그러나 동물 같은 삶이나 교과서 같은 삶, 이 둘 중 어느 것도 여러 사람이 어울려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바람직한 삶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자아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자아는 이러한 이드와 초자아 사이에서 인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준다. 다시 말해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다.

18) 켈빈 S. 홀, 『프로이트 심리학』, 백상창 옮김, 문예출판사, 1984, 90쪽.

진하는 힘인 집중(cathexis)과 그것을 저지하는 힘인 반집중(anti-cathexis) 사이의 대립, 즉 내면적 갈등(inner-conflict)이 존재한다. 이 갈등으로 인해 발산되지 못한 공격성이나 정서적 高揚 상태가 긴장감을 유발한다. 이와 같은 인간 내면의 情을 계속 저지할 경우 심리적 긴장은 심화된다.

시인의 이러한 내적 긴장 상태는 현실에서 표출할 수 없었던 공격성을 시적으로 승화시키거나, 흥취감과 같은 高揚된 정서를 자아와 초아아의 상호작용에 의해 표출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 그럼 ‘豪’字 평어와 관련된 작품을 통해 이러한 긴장감의 해소에 대해 살펴보겠다.

1. 攻擊性的 詩的 昇華(sublimation)

인간은 욕구 불만이나 좌절에 의한 자신의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거나 해소하기 위해 현실에서 허용되는 다른 대치물을 찾게 된다. 가령 손가락을 빨던 어린 아이가 어른에게 야단을 맞게 되면 사탕을 빨게 되는 것이 가까운 예이다. 이렇게 찾게된 대치물이 높은 수준의 문화적 목적을 가지는 경우 이것을 승화(sublimation)라고 한다.

巨匠들의 그림·음악·시·소설 등은 승화를 일으킨 예들로서, 인간이 지적·인도주의적·문화적·예술적 활동에 자신의 에너지를 전환시켜 투입한 결과이다. 즉 성 본능과 공격 본능을 직접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대신 그것을 변형시켜 나타낸 것이다.¹⁹⁾ 본고에서 말하는 공격성의 시적 승화란 바로 이드의 영역에 속하는 공격성과 같은 인간의 豪氣를 현실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대신 시라는 문학 양식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다.

시는 문학이기에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치도 지니게 되며, 실제적인

19) 켈빈 S. 홀, 『프로이트 심리학 입문』, 김평옥 옮김, 학일출판사, 1994, 108쪽.

행동이 야기하는 현실적 위험성도 없다. 그러므로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표출할 수 없었던 공격성이 그대로 표출되기도 하며, 과장이나 과시 혹은 다른 완곡한 형태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럼 이러한 시적 승화의 구체적 양상을 작품을 통해 살펴보겠다. 다음 작품은 전쟁과 관련된 인간의 공격성이 시로 승화된 예이다.

효종이 다음 시를 지으셨다.

我欲長驅十萬兵	내 십만 병을 멀리까지 몰고가서
秋風雄鎮九連城	가을 바람 뚫고 구련성에 진주하여
大呼蹴踏天驕子	저 교만한 오랑캐를 호령하여 짓밟아 버린 다음
歌舞歸來白玉京	춤추고 노래하며 백옥경으로 돌아오리라.

이 시는 辭意가 豪壯하여, “부끄러움을 씻어 모든 제왕에게 보답하고, 간혹을 제거하여 천고의 역사에 보답하리라.”고 한 시구에 거의 뒤지지 않는다.²⁰⁾

역사적으로 볼 때 孝宗(1619-1659, 재위1649-1659)은 부친인 인조가 오랑캐로 여기던 청나라에게 삼전도에서 치욕적인 항복을 하고, 자신은 소현세자와 함께 볼모가 되어 심양에서 수 년간 억류된 경험을 갖고 있었다. 이것은 그의 심상에 정신적 상처라 할 수 있는 트라우마(trauma)로 남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즉위 후 청나라를 상대로 북벌 계획을 세웠다.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해 비록 준비 단계에서 중단됐지만 이러한 시도는 대국을 상대로 먼저 전쟁을 계획했다는 의미에서 후세에 강한 인상을 주었다.

20) 孝廟有詩曰, 我欲長驅十萬兵, 秋風雄鎮九連城. 大呼蹴踏天驕子, 歌舞歸來白玉京. 辭意豪壯, 殆不讓雪恥酬百王, 除兇報千古之作.(『小華詩評』上卷, 第11話)

위의 시는 이러한 배경을 인식하고 읽었을 때, 그 의미적 진실성에 한층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 사실 이 시는 ‘我欲’이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 그 시작부터 상당히 돌올하다. 특히, ‘十萬’이라는 숫자적 과장에서 느껴지는 시인의 자신감과 ‘長驅’라는 시어가 주는 遠征軍의 씩씩한 기상이 제1구를 통해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 제2구에서는 청나라 군대의 주둔지였던 ‘九連城²¹⁾’이 등장하는데, 이 곳은 청나라 전체를 상징하는 代喩物의 역할을 한다. 모든 사물을 시들게 하는 肅殺의 가을 기운을 안고, 구련성에 雄鎮하여 청나라와 대치한다는 표현에서 그 역동적 기상을 느낄 수 있다.

제3구에서는 청나라에 대한 효종의 인식 및 목표가 ‘天驕子’와 ‘蹴踏’이라는 시어에 나타나 있다. ‘天驕子’는 ‘천하에 둘도 없는 교만한 자식’ 정도로 해석이 가능한데 상대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한 시어 사용이다. 그리고 큰 소리로 호령하며 짓밟아 버리겠다는 의미의 ‘大呼’·‘蹴踏’에서는 힘의 과시를 통한 효종의 공격성이 절정을 이루고 있다. 마지막 제4구는 승리 후의 기쁨을 노래한 부분으로 여기서도 ‘歌舞’라는 표현과 옥황상제가 산다는 ‘白玉京’ 등의 시어에서 과장된 豪放함이 표출되고 있다. 특히, ‘白玉京’은 ‘九連城’과 隔句對를 이루며 시인의 豪氣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시 전체는 豪氣로 충만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과격하고 격렬하며 그 스케일이 크다. 그래서 豪放하고 雄壯하다는 의미에서 ‘豪壯’하다는 평가를 받았을 것이다. 청나라와의 실제적인 전쟁은 당시로서는 큰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는 모험이었다. 게다가 효종은 국가의 宗廟社稷과 백성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입장에 있었기에 이처럼 민감한 사안에 대해 신중히 대처해야만 했다.

21) 라오닝성(遼寧城) 단둥(丹東) 북동쪽 1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금나라때 이 곳에 9성을 쌓고 고려와 싸웠다. 명나라 때에는 병영이 줄지어 있어 구련성이라고 불렸다. 明·淸 때 양국 사절이 국경을 건너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요충지이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그의 내면에는 표출되지 못한 공격성으로 인해 많은 심적 긴장이 쌓여 갔을 것이다. 그래서 행동을 통한 표출 대신 ‘豪壯’한 풍격의 시로써 자신의 감정을 승화시킨 것이다.

그럼 鄭澈(1536-1593)이 배 위에서 만난 선비에게 준 시를 통해 일상적인 상황에서 생겨난 공격성이 어떻게 시로 승화되는지 살펴보겠다.

송강 정철이 일찍이 배 안에서 한 선비를 만났는데 그 선비가 송강을 행촌 민순으로 보기도 하고, 또 우계 성혼으로 보기도 하였다. 이에 송강이 절구 한 수를 써서 그 선비에게 주었다.

我非成閔卽狂生	이 몸은 우계도 행촌도 아니요 다만 광생일 뿐이니,
半百年間醉得名	반백 년 동안 주정뱅이로 이름을 얻었소.
欲向新知道姓字	새로 안 이에게 성자를 이야기하려니,
靑山送罵白鷗驚	청산이 꾸짖고 갈매기가 놀라더라.

이 시는 豪逸하여 세상에 매인 기운이 없다.²²⁾

이 시에 대한 분석은 일반적인 감정에 입각해서 했을 때 가장가슴에 와 닿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철의 이 시는 戲作으로서 공격성을 농담 형식으로 풀어낸 것이다. 세상에서 행세깨나 한다는 사람이면 ‘내가 그를 모를지언정 그는 나를 알아야 된다’고 여기는 것이 人之常情이다. 정철의 입장에서 처음 보는 선비가 자신을 몰라 봤을 때 좀 서운한 감정이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선비가 정철을 벼슬보다는 학문의 길을 택한 杏村 閔純(1519-1591)이나 牛溪 成渾(1535-1598)으로 착각하기까지 했으니 조정에서 高官을 지낸 그의 심기가 도무지 편치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직접 대놓고 서운한 심사를 토로하며 따질 수도 없는

22) 鄭松江澈嘗於舟中遇一士人，士人疑其爲閔杏村，且疑其爲成牛溪。松江書贈一絕曰，我非成閔卽狂生，半百年間醉得名。欲向新知道姓字，靑山送罵白鷗驚。豪逸不羈。(『小華詩評』上卷，제98話)

노릇이다. 정철이 낯선 선비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감정도 외부 상황에 대한 일종의 공격성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공격성의 초점을 선비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돌림으로써 이것이 불리울 현실적 위험성을 제거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먼저 제1구에서 ‘狂生’이란 표현은 글자 그대로 미친 사람 내지 허랑방탕한 사람을 뜻한다. ‘狂生’은 『論語』에 나오는 ‘狂者’에 대한 언급과 관련해서 볼 때, 좀 더 심도 있는 해석이 가능하다. 공자는 “中道を 행하는 선비를 얻어서 더볼 수 없다면 반드시 狂者나 狷者和 함께 할 것이다. 狂者は 진취적이고, 狷者は 하지 않는 바가 있다.”²³⁾고 했다. 이 ‘狂者’에 대해 朱子(주희)는 ‘뜻은 지극히 높으나 행동이 말을 가리지 못하는 사람(志極高而行不掩)’이라고 설명했는데, 바로 품은 뜻에 비해 행동이 소략한 사람을 지칭한 것이다. 이처럼 자신을 中行之士가 아닌 狂者에 견준 것은 스스로를 격하시킴으로써 낯선 선비에 대한 공격성을 표출한 것이 된다. 또한 제2구에서 자신을 술주정뱅이에 비유한 것도 狂生과 마찬가지로 선비에 대한 감정을 자신에게로 향하게 한 것이다. 즉 ‘나는 당신이 알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일 뿐이요.’하는 식의 과장을 통해 스스로를 비하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선비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을 담고 있다.

시의 후반부인 제3·4구는 전반부와는 다른 표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철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려는 순간 “청산이 꾸짖고 갈매기가 놀란다.”는 말은 참신함을 느끼게 할 만큼 그 뜻이 모호하다. 물론 배 위에서 보이는 풍경이 청산이요, 갈매기다. 그런데 왜 굳이 꾸짖고 놀란다는 표현을 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두 경물을 통해 자신을 몰라 본 선비를 나무라고자 한 본심을 드러낸 것이다. 청산의 꾸짖음은 자신을 몰라 본 선비에게 호통치듯 이름을 알려주는 정철의 행위요, 갈매기의

23) 子曰，不得中行而與之，必也狂狷乎。狂者進取，狷者有所不爲也。(『論語』「子路」)

놀람은 그 이름을 들은 뒤 선비가 보이는 반응이라 할 수 있다.

프로이트는 인간은 농담을 통해 자신의 내면적 긴장을 해소한다고 했다. 정철은 선비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의 감정이 야기한 내면적 긴장을 戲作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이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듯 농담식으로 시를 지었기에 홍만중은 豪逸하여 세상에 매인 것이 없다고 평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인의 공격성이 자리하고 있다.

2. 自我(ego)와 超自我(super-ego)의 相互作用

인간의 정서가 격동할 때 생겨나는 강한 흥취감을 표출하지 못하면 그 내면에는 긴장감이 형성된다. 그러나 이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할 경우 자칫 性情의 바를 잃기 쉽다. 그래서 性理學에서는 세상 모든 이치가 中庸 아닌 것이 없다고 할 만큼 中庸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왔다. 『詩經』의 『關雎篇』에 대한 孔子의 언급은 이를 잘 대변해 준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詩經』의 『關雎篇』은 즐거우면서도 지나치지 않고, 슬프면서도 和를 해치지 않는다.²⁴⁾

이러한 ‘樂而不淫, 哀而不傷’의 시 정신에 대해 朱子は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關雎」는 周南 國風이니, 『詩經』의 첫 편이다. 淫은 즐거움이 지나쳐 그 바를 잃는 것이요, 傷은 슬픔이 지나쳐 和를 해치는 것이다. 「關雎」의 시는 后妃의 德이 마땅히 군자에게 짝할 만하니, 구하여서 얻지 못하면 자나깨나 생각하며 몸을 뒤척이는 근심이 없을 수 없고, 구하여 얻으면 琴瑟과 鍾鼓의 악기로 즐거워함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그 근심이 비

24) 子曰, 關雎, 樂而不淫, 哀而不傷.(『論語』「八佾」)

록 깊으나 和를 해치지 않고, 그 즐거움이 성대하나 바름을 잃지 않았다. 그러므로 夫子께서 칭찬하시기를 이와 같이 하셨으니 배우는 자들이 그 말을 음미해 보고, 그 음을 살피서 性情의 바름을 인식할 수 있게 하고자 하신 것이다.²⁵⁾

위에서 주자가 말하고자 한 핵심은 균형을 잃지 않은 中正하고 법도에 맞는 감정 표현을 통해 올바른 性情을 함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淫’과 ‘傷’은 인간의 情이 中과 和를 잃은 결과 이르게 된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라 할 수 있다.²⁶⁾ 이처럼 성리학에서는 情의 지나친 표출을 경계해 왔다. 여기서 情을 과도하게 표출하는 것은 시인이 공명정대한 정신적 자세를 놓치고, 思無邪한 시적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情을 곡진하게 드러내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바른 데로 이끈다는 溫柔敦厚의 정신과는 구별해야 한다.²⁷⁾

성리학은 과거 수 백년간 우리 나라를 지배한 이념이었다. 부모의 도덕률이 자녀의 초자아로 내면화되듯 성리학은 당대 사람들의 사고를

25) 關雎, 周南國風, 詩之首篇也. 淫者, 樂之過而失其正者也. 傷者, 哀之過而害於和者也. 關雎之詩, 言后妃之德, 宜配君子, 求之未得, 則不能無寤寐反側之憂, 求而得之, 則宜其有琴瑟鍾鼓之樂. 蓋其憂雖深, 而不害於和, 其樂雖盛, 而不失其正. 故夫子稱之如此, 欲學者玩其辭, 審其音, 而有以識其性情之正也. (『論語』「八佾」)

26) “기뻐하고 노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情이 發하지 않는 것을 中이라 이르고, 發하여 모두 節度에 맞는 것을 和라 이르니, 中이란 것은 천하의 근본이요, 和란 것은 천하의 공통된 道이다. 中과 和를 지극히 하면 天地가 제자리를 편안히 하고, 萬物이 잘 생육될 것이다.”(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 天下之達道也.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 『中庸』「章句一」)라는 언급을 통해 시에서 中·和의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27) ‘思無邪’와 ‘溫柔敦厚’에 대해서는 『漢文學批評論』(정요일, 집문당, 1994, 215- 222쪽)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지배하는 개인적 초자아요, 사회적 초자아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현상은 초자아가 사회화의 산물임을 고려할 때 더욱 이해가 쉬울 것이다. 성리학적 性情觀에 입각한 초자아는 動蕩하는 감정을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문인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강한 정서가 일어나면 시를 통해 그 性情을 다스렸다.²⁸⁾ 그러나 시에서 강한 흥취감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면 훌륭한 시의 기본 요건인 함축미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과도한 情의 표출을 경계하는 초자아의 억압도 받게 된다. 초자아의 억압이란 쉬운 예로 부도덕한 생각을 했을 때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만약 시인이 성리학적 性情觀을 무시하고 情을 마음껏 표출했을 경우 性情의 올바름을 잃을 수 있다는 초자아의 압력 때문에 오히려 심리적 긴장이 가중될 수 있다. 그렇다면 초자아의 억압은 일종의 심리적 처벌이 된다.

하지만 인간의 내면에 생겨난 情을 계속 억압할 경우 심리적 긴장은 심화되므로 현실원칙(principle of reality)²⁹⁾을 따르는 자아와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초자아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즉, 시인은 시를 통해 자신의 역동적 정서를 표현해 내되, 情의 지나친 유출을 막기 위해 여러

28) 시로써 性情을 다스렸음은 다음 예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시에서 善을 말한 것은 사람의 착한 마음을 감동시켜 분발하게 할 수 있고, 惡을 말한 것은 사람의 방탕한 마음을 징계할 수 있으니, 그 효용은 사람들이 바른 性情을 얻는 데에 돌아갈 뿐이다.”(凡詩之言, 善者, 可以感發人之善心, 惡者, 可以懲創人之逸志, 其用, 歸於使人得情性之正而已. 『論語』「爲政」), “시로써 성정을 다스리고, 書로써 政事를 말하고, 禮로써 節文을 삼가니, 모두 일상 생활의 실체에 절실하다.”(詩以理情性, 書以道政事, 禮以謹節文, 皆切於日用之實. 『論語』「述而」註)

29) 현실 원칙은 욕구를 만족시킬 실제의 대상을 발견하거나 만들어 낼 때까지 에너지의 방출을 유보시키는 것이다. 현실적인 대상을 찾을 때까지 불만을 참는 것이므로 현실 원칙도 결국은 쾌락원칙(pleasure principle)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켈빈 S. 홀, 『프로이트 심리학 입문』, 김평옥 옮김, 학일출판사, 1994, 39쪽.)

매개체를 활용해서 표출하는 것이다. 그 결과 이런 시에서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豪’字 평어 특유의 힘과 기운이 느껴지게 된다. 결국, 자아와 초자아의 상호작용이란 현실 원칙에 따라 긴장을 해소하려는 자아와 情緒의 지나친 유출을 경계하는 초자아, 이 兩者가 만족하는 선에서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시란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타협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한시의 미감에서 호탕한 기상은 16세기 이후 도덕적 수양을 중시하는 학자들의 시를 칭송하는 데 배려되고 있다³⁰⁾는 지적은 바로 당시의 도학자들이 ‘豪’字 평어의 작품을 통해 자신의 심리적 긴장을 해소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럼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자아와 초자아의 상호작용에 대해 살펴보겠다.

우리 백씨도 입시하였다가 이문질의 귀에 입을 대고 말하기를, “상감께서 당신은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니, 오늘은 그대가 희롱조로 시를 지어 올리는 것이 좋겠소.”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문질은 드디어 화답해 올리기를,

歌詠聖德欲起舞 성덕을 노래하며 덩실덩실 춤추려니
大風吹袖助回旋 대풍이 소매를 불어 빙빙 도는 멋을 돕는구나.

상감은 껄껄 웃으며 “나는 이에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으로만 여겼더니 지금 이 시를 보니 豪氣가 줄줄 넘쳐 흐르는구나.”하고는 즉시 내녀에게 명령하여 이문질의 시를 비파에 올려 노래와 병창하게 하고, 이문질에게 일어나 춤을 추게 하여 마음껏 즐기고 끝냈다.³¹⁾

30) 이종묵, 『조선전기 관각문학의 성격과 문예미』, 『국문학연구』제8호, 국문학회, 2002, 53쪽.

31) 伯氏亦入侍, 附耳語李文質公曰, 上常以足下爲迂濶, 君可爲戲詩呈之. 遂和云, 歌詠聖德欲起舞, 大風吹袖助回旋. 上大笑曰, 予以芮爲迂儒, 今觀是詩, 豪氣有餘者也, 卽命內女彈琵琶, 用文質所作詩歌之, 令文質起舞, 極歡而罷之.(『慵齋叢話』第18話, 『詩話叢林』卷一)

시인의 자아와 초자아가 상호작용함으로써 지어진 이 시에서 그 재미를 더해 주는 것은 바로 시에 관한 일화이다. 世祖(1417-1468, 재위 1455-1468)는 拔英試를 베푼 다음 날 문무백관을 모아 놓고 위로하는 잔치 자리를 마련했다. 이 때 세조의 御製詩에 신하들이 돌아가며 화답했는데 李芮(1419-1480)의 화답시가 바로 위의 작품이다.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일정한 내면적 준칙인 초자아를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이 준칙이 느슨해서 비도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자유로와 보이기도 한다. 반면 어떤 사람은 이 준칙이 너무 완고해서 도덕 군자 같아 보이기도 하고 샌님 같아 보이기도 한다. 이 시의 작자 이예는 아마 후자쪽에 가까웠던 것 같다. 복잡한 사회가 질서있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원리·원칙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것만을 너무 내세우다 보면 삶이 참 팍팍해진다. 때로는 분위기에 맞춰 어울릴 줄도 알아야 인생살이가 한결 윤택해지는 법이다.

위의 시화에서 伯氏 곧 成俔의 伯兄인 成任(1421-1484)이 이문질에게 귓속말을 한 것은 다름 아닌 분위기에 맞는 시를 지으라는 충고였다. 이를 통해 볼 때 평소 이문질이 흥겨운 자리에서 좌중의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실수 아닌 실수를 종종 범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실원칙(principle of reality)에 충실한 시인 이예의 자아는 자리가 자리인 만큼 너무 진지하게 화답해서는 흥이 나지 않을 것이니 좀 과격을 가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성리학적 사고에 충실한 그의 초자아는 御前에서 취해야 할 신하의 바른 자세와 임금의 올바른 性情 함양에 도움이 되는 시를 지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말한다. 이 시를 짓기까지 이예의 내면은 이 둘 사이의 갈등이 야기한 긴장감으로 충만했을 것이다. 즉 어떻게든 이 둘을 조화시켜서 시를 지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을 것이다.

이러한 내면적 갈등과 긴장의 결과물인 위의 시를 보면, 춤이라는 유흥적 형식 속에 자신의 초자아를 교묘하게 반영시켜 놓고 있다. 첫 구에서 ‘起舞’라는 흥겨운 표현에 ‘聖德’이 등장한다. 특히, 두 번째 구

에서는 ‘回旋’이라는 멋스런 춤사위를 ‘大風’과 연결시키고 있다. 여기서 ‘大風’은 漢 高祖가 천하를 통일한 뒤, 고향인 沛땅에 돌아와 지었다는 『大風歌』³²⁾를 의미한다. 高祖는 宴會를 열고 이 『大風歌』를 지은 후 젊은이들에게 부르게 하고 자신은 춤을 추었다. 이예는 高祖의 이러한 일화를 차용해서 자기화했다. 결국 그는 자아와 초자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임금의 흥취도 살리면서 聖君이 되라는 충언도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의 시에는 세조가 말한 대로 豪氣가 넘쳐난다.

역사상 南冥 曹植(1501-1572)은 出仕 여부를 떠나 적극적인 현실 인식을 보여준 강직한 인물이다. 그의 시 가운데 豪壯이라는 평을 받은 다음 시를 통해 시인의 자아와 초자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남명 조식은 절의를 숭상하여 천 길 벼랑이 서 있는 듯한 기상이 있고 숨어서 벼슬하지 않았는데 문장에 있어서도 역시 奇偉하여 범상하지 않았다.

請看千石鍾	저 어마어마한 종을 보라.
非大叩無聲	저렇게 크지 않으면 쳐도 소리가 없다네.
萬古天王峰	만고에 천왕봉은
天鳴猶不鳴	하늘이 울어도 오히려 울지 않는다네.

와 같은 것은 그 詩韻이 豪壯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부함이 얹지 않다.³³⁾

32) “큰 바람 불어 구름 휘날리도다. 위엄을 천하에 떨치고 고향에 돌아왔네. 어찌 맹사를 얻어 사망을 지킬고.”(大風起兮雲飛揚. 威加海內兮歸故鄉. 安得猛士兮守四方.)(『史記』『高祖本紀』)

33) 曹南冥植, 尙節義, 有壁立千仞之氣象, 隱遯不仕, 爲文章, 亦奇偉不凡. 如請看千石鍾, 非大叩無聲. 萬古天王峰, 天鳴猶不鳴. 不徒其詩韻豪壯, 亦自負不淺也.(申欽, 『晴窓軟談』第14話, 『詩話叢林』卷二)

일반적으로 하늘은 인간에게 있어 절대복종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흔히 왕의 존재를 하늘에 비유하곤 한다. ‘君師父一體’라는 말이 반영하듯 조선 시대는 국가로 상징되는 왕에 대한 충성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했다. 한 시대의 이런 보편적 이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에 대한 반발도 생기기 마련이다.

이 시의 작자인 조식은 일체의 벼슬을 거절한 채 山林處士로 자처하며 평생을 학문과 후진 교육에 힘쓴 학자였다. 그리고 위의 시평에도 나와 있듯, 천 길 절벽 같은 기상을 지녔기에 조정에 대한 직선적인 언사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성품을 지닌 조식에게는 내면의 강한 기상을 표출함으로써 심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자아와 그러한 情緒가 그대로 표출되었을 때 性情의 中正함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초자아 사이의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상호작용의 결과 위의 시에서는 비유를 통해 정서의 유출을 조절했다. 하지만 ‘豪’字 평어 특유의 힘과 기운은 작품을 통해 생생히 전달되고 있다.

제1·2구에서 말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종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는가? 제3·4구에서 萬古의 오랜 세월을 겪은 천왕봉, 하늘이 울어도 결코 따라 울지 않는다는 천왕봉의 존재는 무엇이겠는가? 이것은 바로 시인 자신의 곱힐 수 없는 氣概일 것이다. 천 석들이 큰 종과 천왕봉, 기쁨과 슬픔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강한 감정 표현인 울음, 이러한 매개체를 통해 자아와 초자아가 작품 내에서 상호작용함으로써 자칫 과격한 표현으로 흐르기 쉬운 내용을 뛰어난 기상을 표출한 시로 잘 승화시켰다. 이 시는 절대자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을 거부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각과 믿음을 표현했다. 그래서 시의 운치가 豪壯할 뿐만 아니라 그 자부심도 대단하다는 평을 받은 것이다.

IV. 結論

일반적으로 풍격비평은 비평자의 직관을 중시하기에 논리적인 분석과 구체적인 실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처럼 과거에 시를 감상하고 평가하는 태도는 인상비평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현재의 연구자들로서는 시에 대한 先人들의 비평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큰 난관이었다.

본고에서는 ‘豪’字 평어를 대상으로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자 시도했다. 그래서 『小華詩評』 및 『詩話叢林』을 조사한 결과, ‘豪’字 평어의 종류·사용 빈도·작품수가 15종 29회 44수임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을 텍스트로 하여 ‘豪’字 평어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평어의 美感을 실제 작품을 통해서 귀납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豪’字 평어와 관련된 작품이 갖는 의미를 정신분석학적 방법에 입각해서 고찰했다.

그 결과 ‘豪’字 평어의 美感은 표현 기법의 陽剛함과 응축된 氣象의 發露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표현 기법의 陽剛함은 시의 의미 전달을 위해 사용된 표현상의 특질들이 힘차고 거센 것을 뜻한다. 시에 나오는 인명·지명·숫자 등의 시어가 이루는 대구 및 시어의 역동성, 그리고 悠長하고 廣闊한 시공간적 배경을 통해 이러한 陽剛함이 표출되었다. 그리고 응축된 氣象의 發露는 과장과 과시를 통한 豪氣의 발산, 자연 경물을 통한 感興의 표출이라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작품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고찰에서는 긴장의 해소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논의했다. 인간의 내면에는 욕구를 추진하는 힘인 집중(cathexis)과 그것을 저지하는 힘인 반집중(anti-cathexis) 사이의 대립, 즉 내면적 갈등(inner-conflict)이 존재한다. 이 갈등으로 인해 발산되지 못한 공격성이나 정서적 고양 상태가 인간의 내면에 긴장을 유발하는데, 이러한 긴장감이 ‘豪’字評을 받은 작품을 통해 어떻게 해소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시인의 내적 긴장 상태는 현실에서 표출할 수 없었던 공격

성을 詩的으로 昇華(sublimation)시키거나, 흥취감과 같은 高揚된 정서를 自我(ego)와 超自我(super-ego)의 상호작용에 의해 표출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주제어 : 풍격(Style), 풍격비평(Style Criticism), 호자(letter Ho),
평어(critical remark), 소화시평(Sohwasipyong),
시화총림(Sihwachongrim)

參考文獻

洪萬宗, 『小華詩評』, 연세대 소장본.

洪萬宗 編纂, 『詩話叢林』, 아세아문화사, 1973.

『論語』.

『孟子』.

『中庸』.

司馬遷, 『史記』.

김선기, 「小華詩評 研究」, 전북대 박사논문, 1993.

박찬부, 『현대정신분석비평』, 민음사, 1996.

안대회, 『對校譯註 小華詩評』, 국학자료원, 1995.

오영석 譯註, 『譯註 小華詩評・詩評補遺』, 민속원, 1994.

이종묵, 「조선전기 관각문학의 성격과 문예미」, 『국문학연구』제8호, 국문학회, 2002.

이종묵, 『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태학사, 2002.

이종묵, 「시의 뜻을 호방하게 하는 법」, 『詩眼』제25호, 시안사, 2004.

장 라플랑슈·장 베르트랑 풍탈리스, 『정신분석사전』, 임진수 옮김, 열린책들, 2005.

정요일, 『漢文學批評論』, 집문당, 1994.

차주환, 「唐代的 風格論(上)」, 『心象』 제5호, 심상사, 1974.

켈빈 S. 홀, 『프로이트 심리학』, 백상창 옮김, 문예출판사, 1984.

켈빈 S. 홀, 『프로이트 심리학 입문』, 김평옥 옮김, 학일출판사, 1994.

팽철호, 「司空圖『二十四詩品』研究」, 서울대 석사논문, 1986.

허권수·윤호진 譯註, 『譯註 詩話叢林(上·下)』, 까치, 1993.

홍찬유, 『譯註 詩話叢林』, 통문관, 1993.

<Abstract>

A psychoanalytical study on a critical remark, ‘Ho(豪)’

Jeong, Si-Youl

This study is on a Style Criticism(風格批評) and takes 『Sohwasipyong (小華詩評)』 which is a Sihwajip(詩話集) written by Hong ManJong (洪萬宗, 1643-1725) and 『Sihwachongrim(詩話叢林)』 compiled by him as texts. The study also investigates characteristics of a critical remark on the letter ‘Ho’ and contemplates a critical remark on the letter “Ho”(豪) by psychoanalytical approach.

The characteristics of a critical remark on the letter ‘Ho’ are discussed in the side of Yanggang(陽剛) in an expressional skill and a presentation of compressed Gisang. Yanggang is a strong and tough energy to be felt while reading a certain literary work. Yanggang is shown through Daegu(對句) of a persons’s name, Daegu of the name of a place, Daegu of numbers, dynamics of a poetic word, and long and vast background of time and space. For a presentation of compressed Gisang(氣象), it is confirmed that Hogi(豪氣) and Hongchi(興趣), which are Gisang of man, are expressed through exaggeration, ostentation and a scenery of a season of nature.

For psychoanalytic consideration on the letter ‘Ho’, the study examined that how aggression not to be exhaled from inner person or tension caused by emotional oppression would be gone through a poem valuated as the letter ‘Ho’. As a result, it is confirmed that aggression would be sublimated by a form of art like a poem and

emotional oppression would be gone through interaction between ego and super-ego.

An examination about characteristics of Style critical remark is based on a viewpoint of a critic. On the other hand, psychoanalytic approach is based on a position of a poet. According to reviewing the influence that a poem have upon a poet through characteristics of a critical remark, it is confirmed that a poem is like a mirror which can reflect man's psychological dynamics, complication and delicacy as they are.

정시열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460번지 210호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전화: 02-335-5960(집) 016-680-9127

e-mail: siyol@hanmail.net

이 논문은	2005년	4월	30일	투고하여
	2005년	5월	3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5년	6월	30일	간행함